

出入記者가
본
大韓看護協會

專門紙 고수머리記者라는 「닉·네임」으로 나의 글은 시작되고 있다. 大韓看護協會—그 「켄」을 쓴 看護員像이라 할까, 白色의 「유니폼」에서 얻어지는 眞正한 意味의 使命感이라는 言語로부터 내 視力의 흐름은 어느덧 9개월, 어쩌면 이 자리가 그 終章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先任 혹은 동료들의 「꽃밭에 갔다」는 口說을 들으며 紅多點속에서 靑一點이 되어 겪어온 나의 느낌은 심한 비약이 될런지 알 수 없지만 金素月的 「女子냄새 滿堂」이라는 詩句로 밖에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을 성싶다.

어느 뒤전 세상 살아가기야 거의 다들바 없겠지만 나는 이제까지 내 나름대로 그러한 궤적을 얼마쯤 벗어나 內外를 하고 싶기도 한데 이러한 緣由가 무엇 때문일까. 우선 自問해보고 싶다.

어느 일에게나 섬세한 반면 「스케일」이 적다는 女性團體의 特性과 그러한 意識構造의 一面이 나를 互解시키고 歸化시키려 든다는 착각이 단순한 착각에 크치려 하기 보다는 現實性있는 깊이를 갖고 있대서가 아닌지...

禁男의 집을 드나드는 이런 자리에서 바람기 많은 고독한 황제의 상아홀을 내세울 필요야 없겠지만 때때로 마치 저고리가 되어야 한다는 곤욕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못된다.

第三者의 입장에서 이제까지 겪어온 내 出入口誌의 기록이 단조로운 리듬(?)으로 그러하듯이 처음 출입할 때와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무척 感興이 덜해졌다는게 솔직한 表現이다.

創立51주년에 접어든 금년 看協의 모습은 반세기의 成長年齡을 통해 많은 發展을 해왔으며 어느 다른 團體보다도 알뜰한 女性살림단체로 定評이 나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全國간호원의 「메카」로서 名실상부한 활약을 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반면 對內的인 問題로서의 사업계획의 수립·진행과정이 소극적인데다가 장기간이라는 흠도 없지 않으며 또한 홍보활동의 미숙함은 가장 큰 短點이 아닐런지 아쉬운 마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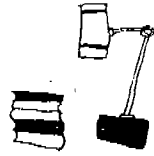
물론 이밖에도 여러가지의 소소한 문제점이 없을 수 없겠으며 또 그러한 點은 看協의 집행부나 실무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아뭏든 出入處와 出入記者라는 연분으로 원고청탁을 받고 이런 글을 쓰게는 되었지만 막상 편집자의 意圖가 나뉘어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에 미쳐서 더러 신경이 쓰이고, 10여장의 원고지에 할애되는 나의 愛情이 다칠까 염려스럽다.

특히 호랑이해인 새해 서른이 된 종각記者로서 「女性團體운운」해가며 얼굴을 보이기가 웬지 쑥스럽기조차 한데 좋은 말 싫은 말을 가리자니 자존심이 傷할 것 같고 안 그러자니 미움을 받을 것도 같고, 처신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제인가 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鄭 元 模
<의협신보기자>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똑똑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리고 보면 지금의 내 경우가 이 세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狀況인 듯, 아무려나 先進外國과 달리 記者의 社會的인 지위가 모호한 우리나라의 實情에서 「글쟁이」노릇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그러한 바보로 說明되어지는 것이 제격이리라.

옛 古書에 나오는 眞人에게서 마음의 病을 없애는 비결을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일에 얽매여 나는 다시 病아닌 病을 얻었으니 의외에도 홍보매체로서의 기능과 감각을 상실했다고 해야 더 옳은 얘기가 될법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現狀은 아마도 나의 異常(?) 체질에 앞서서 「뉴스 메이커」쪽의 단조로움과 不活性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혼자 생각도 해본다.

아름다운 男性세계와 달리 「후리·디스커션」이 어려운 出入處인 것만은 사실인데 大韓看護協會를 출입하는 記者로서 이름하여 看護學的인 산책을 하다보면 對話와 행동에 큰 어려움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제는 어느덧 탄성이 되어 시쳇말로 주눅이 들었는지 나로서도 부담을 느끼려 하지 않지만 뭔가 그 이상의 發展的인 바람직한 狀況의 到來를 바라기란 요원한 일인 듯 싶다.

이러한 책임은 내가 男子라는 탓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言語를 絶한 채 보고 듣기만 해야 하는 것이 내게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저러나「無用」과 「有用」의 교훈이 다 함께 사람을 부리고 있는 이 世上을 外面할 수 없는 일이고 보면 나는 또다시 그 中道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大韓看護協會의 측면에 서서—

간호학계 여러분에게

귀하의 연구노력하신 玉稿를 여러분의 후배를 위하여 또한 간호학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본협회 도서관에 비치하여 항상 참고가 되도록 2분씩 남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은 1부라도 꼭기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세한 女性살림단체이나
對內外활동이 너무 소극적